



## all\_세계적\_Incheon

런던 히드로 공항이 배워간 공항이 있는 도시. 교토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제네바를 이기고 UN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도시. 두바이보다 뜨는 동북아 교통과 경제 허브 도시.  
세계적이다 못해 세계를 넘어선 도시 인천. 세계로 길을 잇고 더 큰 내일을 열겠습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all ways INCHEON

## 굿모닝 인천

2017 JULY  
INCHON MONTHLY MAGAZINE



07  
JULY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신도 갯벌  
33×77(cm) oil on canvas 2016

같은 듯 다른 빛깔의 삼형제,  
신도·시도·모도

세 개의 섬이 연륙교로 이어진 삼형제 섬, 신도·시도·모도.

넓게 펼쳐진 염전에서  
새하얀 소금꽃 피는 신도,  
수많은 생명 품은 검은 갯벌과 북도양조장 도천막걸리로  
심신을 달래주는 시도,  
조각 작품으로 채워진 배미꾸미해변과 섬 끝자락,  
바위를 뚫고 자라는 어린 소나무가 있는 모도.

오손도손 사이좋은 삼형제 섬에  
오늘도 같은 듯 다른 빛깔이 반짝입니다.

**고제민 작가** 인천 출생(1960), 서울예술고, 덕성여대 서양화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현) 인천영화관광경영고 재직, 한국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부스전 5회, 단체전 및 해외전 다수, 「엄마가 된 바다」(2015) 「인천의 항구와 섬」(2013) 출간

발행처 인천광역시\_\_발행일 2017년 7월 1일\_\_발행인 인천광역시장\_\_편집인 박제홍(시민소통협력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_\_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_\_사진 김성환·류창현·홍승훈·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_\_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INCHEON MONTHLY MAGAZINE\_\_2017 JULY\_\_VOL. 283



표지사진 류창현

일곱 번째 길;  
오래된 미래  
(소청도 분바위)

06\_특별 기획 소청도 분바위·백령·대청 지질 탐사·소청도 등대 30\_드론 찰칵, 달리 본다 목석, 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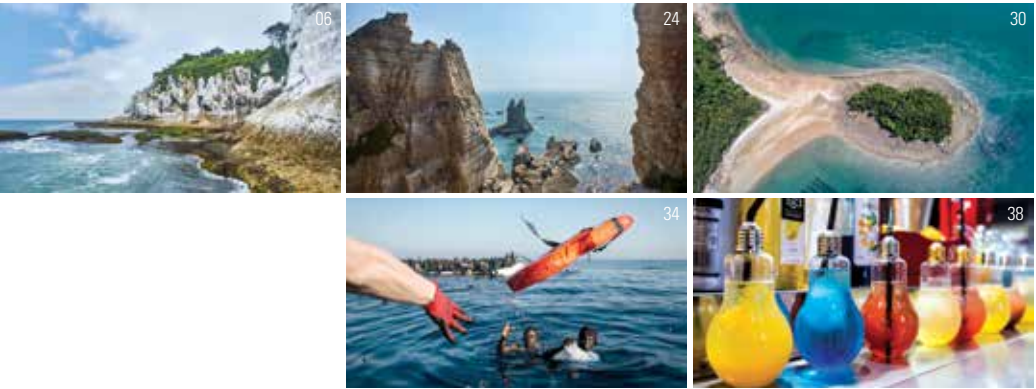
34\_화제의 인물 그린피스 항해사 김연식 38\_여름 별미 야시장 맛 vs 맛

42\_박물관 이야기 송암과 우현 44\_문화 캘린더 2017 악동뮤지션 콘서트 '일기장' IN 인천 외

46\_시정 뉴스 민선 6기 3주년 시민과의 대화 외 50\_의정 뉴스 제7대 인천광역시의의회 후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외

52\_찰칵. 인천 인천 사진 전시회 53\_컬러링. 인천 선재도와 목석 54\_Info Box 취업 연계 과정 교육생 모집 외

57\_인천의 생물 이야기 소래습지에서 만나는 사데풀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 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 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인천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인천보조기기센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가장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  
천보조기기센터(www.icatc.or.kr ☎1670-5529)로 문의 바랍니다.

###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 시장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과 시민이 인천의 희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소  
통 데이트 ‘시민희망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 시민과  
소통하는 ☞ 시민 희망 데이트 ☞ 데이트 신청하기로 신청하세요.

### 수봉공원 물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인데 예약해야 하나요?

남구 수봉공원 물놀이터는 7월 1일에서 8월 말까지 운영하며 무  
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880-4502)로 문의하세요. 인천에는 그 외에도 연수구 문화공원,  
부평구 갈산공원, 동구 송현공원, 청라호수공원, 남동구 어울근린  
공원 등에서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 차이나타운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나요?

경인선 인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 ‘한국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  
운입니다. 화교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간직한 곳으로 중국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자유공원과 월미도, 송월동 동  
화마을 등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 시민 목소리, 시정 반영



민원담당 친절 교육 개최

### 이해·소통, 행정 실현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천  
우리 시는 지난달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시, 군·구 민원담당자, 청원경찰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민원 담당 친절 교육을 개  
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CS(고객  
만족) 전문가 이도경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습  
니다. 이 강사는 이번 강의에서,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개인별 진단 및 대응방법, 감정조  
절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 친절해지는 9가지 방  
법 등을 일선 민원 현장에서 직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고객감동 서비스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  
다.”며 “앞으로 우리의 고객인 민원인의 입장에  
서 생각하고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이 시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인천  
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시 민원실 ☎440-2582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독자 이재기(80·남동구 용천로)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재기 독자님  
은 오랜 세월 인천에서 교편을 잡아온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천시장상, 교육부장  
관상, 인천교육대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이 선생님께서 살아  
온 삶을 가늠케 합니다.  
인천과는 1980년 3월 1일 제물포여중으로 발령이 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  
향 충청도를 떠나 인천으로 올라오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륙 도시에서는 꿈도 못 꾸던 바다와 섬이 눈앞에서 펼쳐진 사실입니다. 인  
천의 바다를 처음 본 건 1960년 평택에서 초등학교 제자들과 월미도를 찾았을  
때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아이들  
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 해맑은 얼굴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굿모닝인천>은 1994년 잡지를 창간하고 얼마 후인 1999년부터 읽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었던 이재기 독자님은 일반 잡지는 물론 관공서에서 만드는 책까  
지 꼼꼼히 보는데, 그중에서 <굿모닝인천>이 단연 최고라고 치켜세웁니다. “매  
달 <굿모닝인천>을 보면 인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글도 사진도 좋아요.  
인천에 대한 사랑이 절로 들게 만든답니다.”  
어르신은 인천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큼  
니다. 퇴직 후에도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인천 바로 알리기’ ‘인천문화발전  
연구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학산월미산 지킴이’ 등에서 활발히 활  
동하며 인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작사가로도 활동 중인 어르신은 최근 ‘월  
미 평화의 나무’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푸르고 싱싱한 월미산에 해맑은 미소  
를 띄우고 / 도란도란 속삭이며 오르내리면서 / 꿈을 키우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 월미산을 사랑하고 랄랄랄랄 노래하는 월미산의 어린이들” 인천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담백 담긴 노래가 7월 햇살 아래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순수하고 은밀하다  
소청도의 ‘빛’ — 色  
象 — ‘꼴’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소청도는 비루한 언어로는 담기 힘든 오묘한  
‘빛(色)’과 ‘꼴(象)’로 차 있다.  
새하얀 빛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분바위,  
푸른빛으로 하나 되어 물결치는 하늘과 바다,  
그 아래 보석처럼 박힌 옥빛 물웅덩이.  
이 세상이 아닌 듯, 순수하고도 은밀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하늘도 바다도 온통 파란빛. 그 안에 분바위가 새하얗게 빛난다.

‘여기가 어디인가’ 소청도 분바위 지대에 서 있으면, 정신이 아득하다. 십억 년이라는 긴긴 세월 한자리에서 버텨왔는데, 이제야 ‘발견’하다니…. 처음 이곳에 발 디디면 이국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낯선 풍광에 압도당하고 만다. 마치 지구 밖 세계에 불시착한 듯하다.

소청도 선착장에서 동쪽 해안을 따라가면 흰색 바위가 무리 진 거대한 설산과 마주한다. 이 바위는 하얀 분으로 곱게 단장한 여인의 자태를 닮아 ‘분바위’라 이름 지었다. 달빛 비추는 밤이면, 그 모습이 하얀 띠를 두른 것 같아 ‘월띠’라고도 불린다. 바위는 먼 옛날, 별빛뿐인 그믐밤이면 육지로 돌아오는 뱃사람들에게 빛을 뿌려 길을 열어주었다.

천연기념물 제508호인 분바위는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 바위는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암으로 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 드문 암석이다. 햇살, 비, 바람, 파도에 오랜 세월 깎이고 깎여 지금의 빛을 가졌다. 분바위 가까이에는 십억 년 전 분포하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가 깃들여 있다. 이 암석은 지구 생성 초기 바다에 살던 남조류와 박테리아가 한 켠 한 켠 쌓이고 쌓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품고 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걸리자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내비친다. 분바위가 눈이 부시어 어릿할 정도로 새하얗게 빛난다. 그 빛이 짙은 코발트빛 바다와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다. 그러다 이내 햇살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회색 또는 하늘빛으로 반짝인다. 자연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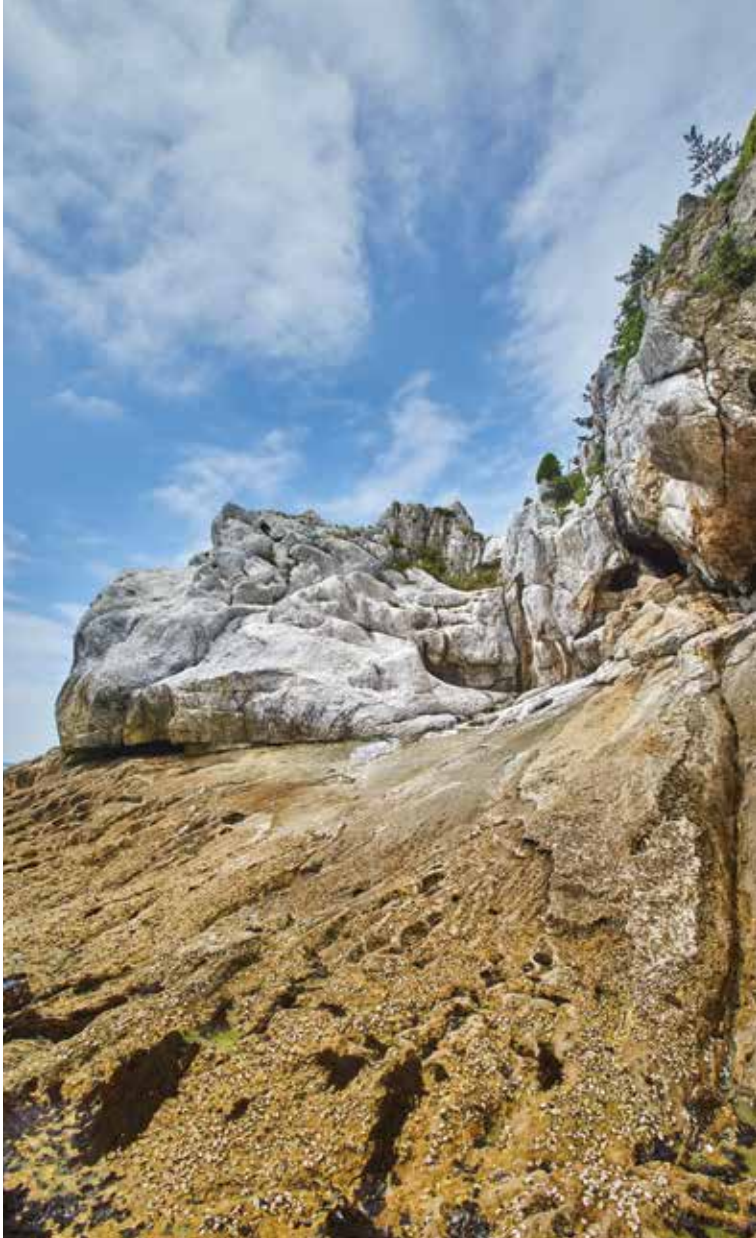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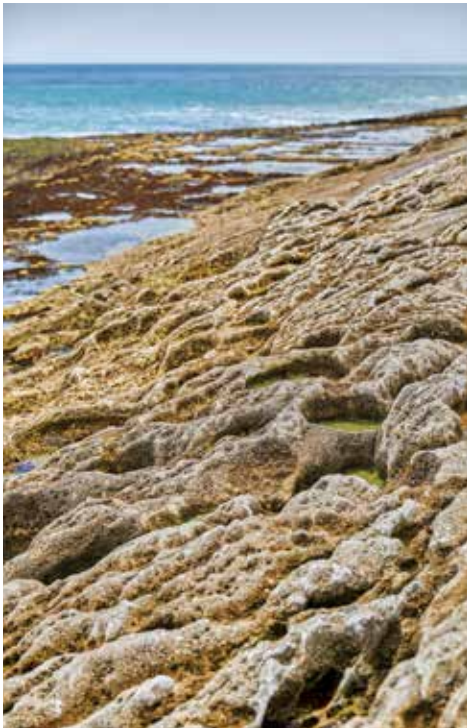


자연산 홍합이 드글드글 깔린 분바위 해변



바닷물에 녹은 석회암 응덩이가 모여 ‘작은 바다’를 이루었다.





분바위 바닷가를 메운 바위. 마치 화성에 온 듯 묘한 기분을 자아낸다.

바위 아래는 수억 년 시간이 빚어낸 천연 수족관이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물이 빠지면 열리는 바닷길에는, 긴 세월에 녹아내린 석회암 웅덩이가 촘촘히 박혀 있다. 하늘을 담은 이 작은 바다는 저마다 다채로운 빛과 색으로 반짝인다. 마치 각기 다른 신이 빚어놓은 예술작품 같다. 그 길에는 홍합, 고동, 산호초, 톳, 미역, 다시마 등 해양 생물이 지천이다. 행여 다치지 않을까, 발 밟고 지나가기 미안할 정도다.

그렇게 유명하듯 바다를 건너 육중한 바위의 몸뚱이를 밟고 올라선다. 푸른 바다 한 가운데 펼쳐진 순백의 세계. ‘이런 광경을 본 적 있던가’. 태초의 시간이 흠뻑 배인 섬. 이 세상이 아닌 듯, 순수하고도 은밀하다.



섬은 깨질 듯 투명한 자연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분바위 해안은 지형이 암도적이지만 빛깔도 매력적이다.

육지,  
섬의 아름다움을 탐하다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

소청도는 백령·대청 섬 가운데 제일 작지만, 나이로는 큰형님이다. 섬은 지질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퇴적 기원의 변성암으로 이뤄졌다. 그중 천연기념물 제508호인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압권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이며, 새하얀 대리암인 분바위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암석이다. 분바위는 대청도로 유배 온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가 자주 찾았을 만큼 절경이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도 탐하여, 오랜 세월 파헤쳐지고 상처 입어왔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암석을 건축자재로 채굴해갔다. 광화문 앞 교보문고 지하도 벽면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깃든 분바위의 결정질 석암으로 만든 것이다. 이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기 위해 200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 기획

백령·대청 지질 탐사

백령 — 대청  
시간이 빛은 절대비경

세상에서 뚝 떨어져 서해 최북단에 오롯이 핀 섬.  
바다 한가운데서 외로움 견디고 거친 파도 헤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섬의 운명이다.  
만약 쉬 닿을 수 있었다면 이토록 아름다웠을까.  
세상 그 어디에도 비할 데 없다.  
그 섬엔, 십억 년 아득한 시간이 빛은  
절대비경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백령·대청 탐사에는 우리 시 환경정책과 이현애 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수재 박사, 제주 지질해설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백령·대청에는 십억 년 시간을 거스른 지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는 이들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백령·대청 11개 지질 명소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고,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평의 바다에서 직각으로 솟아오른 ‘서풍받이’ 절벽

이른 아침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청도 건너 백령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다. 안개꽃이 바다를 하얗게 뒤덮었다. 아차, 비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해미가 아니던가. 다행히 예정대로 여객선이 닻을 올리고 흰 물꽃을 일으키며 바다를 가로지른다. 뱃길로 꼬박 서너 시간을 달려야 다다르는 머나먼 섬. 제때 들어갔지만 제때 나올 수 있을까. 비에 젖어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에 사로잡힌다. 뱃멀미로 속이 울렁인다.



‘서풍받이’의 희생이 낳은 풍요

### 푸른 섬 온몸으로 지키는 절벽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대청도의 자태가 아른아른 보인다. 어느덧 배가 속력을 낮추고 뱃머리가 선착장에 부드럽게 입맞춤한다. 하늘엔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맑은 햇살이 내비친다. ‘아, 섬이로구나.’ 스치는 바람도 공기도 육지와는 다르다. 선착장 바로 옆에는 담동 해변이 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암벽 검은낭에 최근 몽돌소리길, 파도소리길, 바람소리길이라는 예쁜 이름의 해안 산책로가 났다. 길은 나무 데크가 깔려 걷기 좋다. 중간중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가만히 서서 바람의 감촉도 느껴본다.

이윽고 대청도의 첫 지질 명소인 ‘서풍받이’ 거대한 절벽에 이르렀다. 스케일이 다르다. “제주도와는 상대가 안 되네. 세계 지질 공원감이야.” 동행한 제주 지질해설사 현원호 씨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세계 곳곳의 지질 명소는 다 섭렵한 지질학 박사들도 찬사를 보낸다. 이 바위는 긴긴 시간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수평의 바다에서 직각으로 솟아오른 해안 절벽. 그 맞은편에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초원지대가 펼쳐진다. 제 살 깎아내며 지키느라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가슴 한편이 저릿하다.





검은능에서 바라본, 햇살에 젖어 이드르르한 바다

### 신기루처럼 사라진 섬의 사막

탐사 이틀째, 섬의 하루가 밝았다. 이른 아침잠에서 깨자마자 ‘옥죽동 해안사구’로 발걸음을 옮긴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사하라 사막’을 마음에 그렸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겨울 북서풍이 불면 모래가 높이 쌓이는데, 이맘때는 거의 이동하지 않아요. 바람막이숲 때문에 모래길 이 막히기도 했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의 설명이다.

옥죽동 해안사구는 중국으로부터 날아 온 모래가 긴 세월 쌓이고 쌓여 언덕을 이룬 것이다. 때로 동네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놀 만큼 높다랗다. 하지만 나무를 심어 모래 길을 막으면서 언덕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자구책으로 육지에서 모래를 공수했지만, 사려 깊지 못했다.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돌멩이가 섞인 거친 모래를 퍼부은 것이다. “‘활동 사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역 주민이 사는 게 먼저이지 않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결국 자연에 순응하는 일이다. 자연을 따르기엔 우린 이미 문명의 편리함에 젖어 있다.

### 바닷가에 새겨진 ‘어제와 오늘’

옥죽동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농여 해변에 이른다. 백령·대청에는 유독 지층이 세로로 서거나 뒤집힌 곳이 많다. 이 해변이 품은 ‘나이테바위’가 대표적이다. 섬 주민들이 고목나무라 부르는 바위에는 지구의 나이테가 켜켜이 쌓여 있다. 평평한 땅을 우뚝 일으켜 세운 거대한 자연의 힘이 가슴에 부듯이 느껴진다.

하루 두 번, 바다가 밀려간 자리엔 모래섬 ‘풀등’이 홀연히 솟아오른다.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모래사장은 폭신평신했건기 좋다. 큰 바다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물은 웅덩이에 고여 작은 바다를 이룬다. 이 또한 절경이다. 물 빠진 해변은 곁에 있는 미아 해변과 하나로 이어진다. 이 바닷가 바위에는 십억 년 세월이 빚은 연흔(漣痕)이 선연하게 남아 있다. 재밌는 건 파도가 바로 앞 모래사장에 똑같은 물결무늬를 새긴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물결을 어루만지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지구의 나이가 켜켜이 쌓인 ‘나이테바위’





소청도 분바위 지대는 ‘빛(色)’과 ‘꼴(象)’로 차 있다. 지형이 압도적인 데다 빛깔도 매력적이다. 검은빛, 옥빛, 하얀빛, 푸른빛이 대비되어 선명히 빛나다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빛을 창조한다.

북한 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 구조물들을 세워놓은 진촌 바닷가. 그 척박한 바다를 헤치고 억척스럽게 희망을 낚아 올리는 삶의 치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아픔’과 ‘희망’이 공존한다.



강렬하면서도 아스라하다. 섬은 세찬 기운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다 순간 아련한 여지를 남긴다. 농여 해변의 풀등이 그렇다. 바다가 섬을 놓아 주는 시간은 단 여섯 시간. 하루 두 번, 바다가 밀려간 자리엔 모래섬이 신기루처럼 솟아오른다.

글과 사진으로만 보던 섬을 눈에 담으면, 그 ‘놀라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두무진 바다 한가운데. 두 눈을 드는 순간, 원초적인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가 바다와 어우러져 출렁인다.





## ‘아픔’의 바다에 핀 ‘희망’

섬을 건너 또 다른 섬으로 간다. 백령도 선착장에 도착하자 섬 주민이자 지질해설사인 박찬교 씨가 반갑게 맞는다. 그는 1972년 백령도에 첫 발령을 받은 ‘섬마을 선생님’이었다. 당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꼬박 열다섯 시간 걸려 섬으로 왔다. “그땐 섬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림같이 아름다웠는데, 섬 여기저기에 철조망을 두르면서 삭막해졌어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아픔과 희망이 공존한다. 지질 명소인 ‘감람암 포획 현무암’을 찾아 간 진촌 바닷가에도 그 현실이 살갓에 닿듯 끼친다.

백령 바닷가에는 어느 해변에서는 볼 수 없는 뾰족한 철 구조물들이 사열 받듯 일렬로 세워져 있다. 북한 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섬 주민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삶의 희망을 낚아 올린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기운 넘치니까 하지. 얼마나 재밌어.” 어르신이 미역을 잔뜩 이고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물가를 나선다.

시에서 왔다고 하니, 작업물을 차로 옮기는 데 힘이 부친다며 바닷가까지 길을 내주면 좋겠다고 한다.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여기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감람암을 품은 현무암은 지구 깊은 곳의 역사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질 자료다. “그래요? 천연기념물이 다치면 안 되지. 아무렴, 내가 백령도 사람인데. 우리나라 섬 중에서 백령도가 제일이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고향의 자연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고맙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백령도에는 ‘늙은 신이 빛은 마지막 작품’이 있다. 억겁의 세월이 빛은 ‘두무진’ 기암절벽의 자태는 진저리칠 정도로 찬연하다. 두무진 포구에서 유람선을 타면 이 일대를 둘러볼 수 있다. 선대암, 형제바위, 코끼리바위, 사자바위…。 한꺼번에 쏟아지는 절경에 감탄사가 연이어 터져 나온다. 이름처럼 용맹한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 같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은 십억 년 전 형성된 규암이 단단히 굳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풍화작용으로 암석이 붉게 물들고, 이질암과 실트암이 침식되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다. 내친 김에 산책로를 따라 두무진의 품으로 파고든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절벽, 고개 들어 지나온 시간을 가늠해 본다. 몇 번을 올려다보았는지 모른다. 위풍당당한 기세에 눌러 숨이 막힌다. 섬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콩돌 해안에서 섬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바닷가에는 오색 빛깔 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쓰다듬고 간 자갈밭이 물결 따라 오묘한 빛으로 반짝인다. 크고 단단한 바위가 작은 콩돌이 되기까지,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을까. 차르륵~ 차르륵 귓가에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청과 백령은 우리나라 섬들 중 가장 오래됐으면서 또 경관의 아름다움이 탁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섬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지질전문가 전용문 박사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준다. 시간이 빛은 절대비경. 세계 곳곳을 누빈 지질학자들도 세계적으로도 닮은꼴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거리도 시간도, 아득히 먼 섬. 그 섬이 숨겨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수줍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든다.

백령·대청 지질 명소 탐사 일정

- 1일차 : 소청도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청도 서풍받이와 기름아가리
- 2일차 : 옥죽동 해안사구, 농여 해변 고목나무와 풀등, 지두리 해변, 미아해변 상 물결무늬, 백령도 감람암 포획 현무암, 두무진
- 3일차 : 사곶 해변, 콩돌 해안, 남포리 습곡

백령·대청 가는 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면 대청 건너 백령으로 간다. 인천 시민은 배삐가 60% 할인된다. 지난달 6일부터 오전 백령 출항 여객선 ‘웅진훼미리호’가 3년여 만에 닻을 다시 올렸다. 문의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599-5985





특별 기획

백령·대청 지질명소 11

01.두문진 (명승 제8호)



대한민국 명승 제8호인 ‘두문진’은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릴 만큼 절경이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은 십억 년 전 형성된 규암이 단단히 굳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일대를 돌면 선대암, 코끼리바위, 물범바위, 형제바위 등이 미(美)의 경연을 벌인다.

02.남포리 습곡 (천연기념물 제507호)



장춘 포구 서쪽 해안에 있는 용틀임바위 건너편 바닷가 절벽에 있다. 십억 년 전에 쌓인 지층이 지각변동에 의해 굽고 휘어진 후 풍화와 침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단층 및 습곡 구조가 이렇듯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03.콩돌 해안 (천연기념물 제392호)



무려 1만 5천 년이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깎여 작은 콩돌이 되기까지의 세월. 예쁘다고 돌을 함부로 주머니에 넣어 가선 안 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몸’이니.

오래되고 아름다운,  
섬의 열한 개 보물

백령·대청에는 십억 년 시간을 거스른 지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 시는 이들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백령·대청 11개 지질 명소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것이 목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04.사곶 해변 (천연기념물 제391호)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이다. 최근까지도 군사 비행장으로 사용했다. 규암 가루가 치밀하고 단단하게 쌓여 있어 자동차로 달려도 바퀴 자국조차 나지 않는다.

05.감람암 포획 현무암 (천연기념물 제393호)



진촌리에서 동쪽으로 1.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안에 분포한다. 검은 현무암으로 된 암층에 노란 감람암 덩어리가 파고든 모습이 이채롭다. 지구 깊은 곳의 역사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질 자료다.

06.농여 해변의 고목바위와 폴등



백령·대청에는 유독 지층이 세로로 서거나 뒤집힌 곳이 많다. 농여 해변의 ‘나이테바위’가 대표적으로, 섬 사람들은 ‘고목나무’라고도 부른다. 층이 세로로 서 있는 모습에서 지각 변화의 힘이 느껴진다. 썰물 때는 모래섬 ‘폴등’이 신기루처럼 솟아오른다.



07.옥죽동 해안사구



옥죽동에는 섬사람들이 언덕 아닌 사막이라 부르는 사구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바람에 실려 날아온 모래가 쌓여 산과 깊은 골짜기를 이루었다. 문화유산 보호 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09.지두리 해변



함경도 사투리로 ‘경첩’을 뜻하는 ‘지두리’ 해변. 해안이 문을 연결하는 경첩처럼 ‘ㄷ’자 모양을 하여 이를 붙여졌다. 자연경관도 뛰어나지만, 지층이 뒤집힌 특이한 구조가 눈에 띈다. 아래 있어야 할 지층이 위로 올라온, 이른바 지층 역전 현상이다.

08.미아 해변 쌍 물결무늬



미아 해변에는 6~10억 년 전 바위에 새겨진 연흔(漣痕)이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앞 모래사장에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생긴 쌍 물결무늬가 오묘하다. 또한 이곳 바위에는 특이지질구조(시너레시스, Syneresis)가 발견되어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10.서풍받이와 기름아가리



고도가 약 100미터에 이르는 규암 덩어리가 웅장한 수직 절벽을 이루고 있다. 바람이 매우 강해 바위 표면에 어떤 식물도 뿌리내리지 못한다. ‘기름아가리’는 구부러지고 끊어진 지층이 오랜 세월 서서히 변하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11.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제508호)



소청도는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지대만으로도 최고의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이며, 대리암 분바위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암석이다. 바위 아래 홍합, 잘피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군락지가 있다.





## 북쪽 바다 어루만지는, ‘백 년’ 빛

서해 최북단에 외로아 핀 작은 섬.  
소청도에는 1908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가 있다.  
십 초에 한 번,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 그 빛은 110여 년 긴긴 세월,  
서슬 퍼런 이념의 파도가 달려드는 밤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1908년 1월 1일, 불 밝히다

소청도 가는 길은 거리로도 마음으로도 멀다. 뱃길로 세 시간 반, 두 동강 난 바다 북방한계선 바로 아래 있는 섬.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남녘 바다 끝, 북녘 바다 시작점에 비밀스레 숨어 있는 섬에 다다른다. 선착장에 마중 나온 소청 출장소 직원을 따라 길을 나선다. 이 섬에는 1908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가 있다. 그 안에는 110여 년 줄기차게 빛을 쏘아 온 등명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돈다. 그 밝기는 촛불 15만 개를 동시에 켜 것과 같다. 날이 좋으면 40킬로미터 너머까지 다다른다. 그 빛은 멀리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 지방을 오가는 선박들에게도 길을 내 주었다. 등대 가는 길,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지 일 년이 채 안됐다고 했다. 전엔 노후 된 시멘트 도로였고, 더 오래전엔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였다. 잘 닦인 도로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는 게 쉽지 않다. 땅 멀미가 인다. 하지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스치듯 비치는 절경에 답답했던 가슴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진다. 그렇게 섬 남서쪽 끝자락에 이르자, 하얀 등대가 고고한 모습을 드러낸다.

### 비바람 속 꺼지지 않는 불빛

소청 등대는 문공배(59) 소청도 향로표지 관리소장과 등대원 두 명이 지키고 있다. “옛날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불쑥 찾아온 물 손님이 반갑지 않은지 문 소장이 통명스럽게 내뱉는다. “예전에 이 등대에서 하룻밤 신세진 적이 있어요.” 함께한 일행이 건네는 말에 문 소장의 눈빛이 한결 너그러워진다. 취재차 직원 관사에서 머물렀는데, 당시 등대원으로 근무하던 문 소장은 때마침 물에 나간 바람에 마주치지 못했었다. “나하고 대포 한잔 하셔야겠네. 허허.”



리모델링한 새 건물 사이 남아 있는, 옛 계단



소청 등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산둥반도까지 고래잡이하고 돌아오는 향로를 비추기 위한 것이었다.





1

“등대는 뱃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야.  
등대지기는 그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2

- 1. 벌써 세 번째 소청 등대를 지키는, 문공배 소청도 향로표지 관리소장
- 2. 내년이면 불 밝힌 지 꼭 110년이 되는 등명기
- 3. 등대 옆 홍보관
- 4. 등대에서 바라본 대청도

뜻밖의 인연에 이야기보따리가 술술 풀린다. 문 소장은 인천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외딴섬의 등대지기가 되길 자처했다.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묵묵히 바다를 지키는, 등대처럼 살고 싶었다. 하지만 물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외딴섬에서의 삶이 녹록할 리 없다. 처음 발 디딘 섬은 이름도 생소한 목덕도. 안개가 바다를 하얗게 뒤덮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두려움이 밀려왔다. 처음 그에게 자연은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차례 보내면서 점차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등대지기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여 년이다. “소청도만 벌써 세 번째 왔어요. 지금은 육지보다 섬에 있는 게 편해요. 바다 지키면서 가끔 시간 나면 고기 잡고 흥합 캐고…. 그런 재미로 살아요.”



3



4

섬 안의 ‘또 다른 섬’

말은 그리해도, 등대지기의 24시간은 바쁘게 돌아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무인표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양 기상을 관측하고 장비를 기름칠하고 조이며 늘 점검한다. 세상에 어둠이 내리면 등명기의 스위치를 올린다. 등명기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초, 10초에 한 번 섬광이 뻗어나간다. ‘심장’ 같은 그 빛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주기도 정확히 맞춰야 한다. 단순히 빛만 쏘는 게 아니다. 해무가 가득 낀 날이면 등대 불빛은 아무 쓸모가 없다. 기상 상태에 따라 광파, 전파, 음파를 내보내며 뱃길을 안내해야 한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온 세상이 잠든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등대지기 세 명이 1일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쉬는 날 물에 들어갈 때면 그렇게 잠이 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 뿌듯해요. 등대는 뱃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섬의 밤은 육지보다 빨리 찾아온다. 어스름이 내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해와 달이 자리를 바꾼다. 순간 번쩍이는 섬광. 새하얀 빛줄기가 검은 바다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해 최북단 바다에 홀로 솟은 ‘또 다른 섬’의 하루가 시작됐다.

등대섬 가는 길  
소청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탄다.  
인천 시민은 뱃삐 60% 할인된다.  
지난달 6일부터 오전 백령 출항 여객선 ‘웅진훼미리호’가 3년여 만에 닻을 다시 올렸다.  
문의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599-5985



드론 찰칵, 달리 본.다.

■  
목섬, 풀등



전  
매  
년  
이  
시

## 숨겨놓은 섬 하늘에서 보다

섬의 모양은 정형화돼 있지 않다.  
선녀, 장군, 코끼리 등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린 모습대로 보인다.  
물이 찼을 때와 빠졌을 때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모양이다.  
그 각도가 하늘이라면 어떨까.  
늘 봐왔던 섬이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그 낯섦이 절대매력이다.



선재도 목섬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드론 찰칵, 달리 본.다.

목섬, 풀등



대이작도 풀등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경 겨울 바다 정취를 즐기던 여행객 두 명이 작은 섬에 갇혔다. 그들이 고립된 섬은 옹진군 선재도 해변가에서 500m 떨어진 목섬이다. 썰물 때 난 길을 따라 들어갔다가 물때를 놓쳤다. 선재도 사람들은 하루 두 번 나타나는 이 길을 목덜미를 닦았다고 해서 ‘목떼미’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 목떼미가 사라진 지도 모를 만큼 뛰어난 비경에 취해 있었다. 이 섬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승봉도 앞에도 목덜미가 짧은 ‘목섬’이 있다. 이 시대의 로빈슨 크루소들은 ‘셀프 고립’을 자처하며 섬에서 ‘자유’를 꿈꾼다.

대이작도 바로 앞에는 ‘풀치’ 혹은 ‘풀등’이라 불리는 모래섬이 있다. 밀물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썰물 때 서서히 거대한 속살을 드러낸다. 대이작도 부아산 꼭대기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고래가 숨 쉬러 물 위로 솟는 장면 같다. 보트를 타고 고래 등에 올라타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곳에선 지평선과 수평선이 함께 있다. 바다가 섬을 놓아주는 시간은 단 여섯 시간. 물이 서서히 주위를 감싸 오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 대이작도에서 풀등 쪽을 바라본다. 조금 전까지 발을 딛고 서 있던 모래섬이 마치 헛것인 양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순간 ‘세상만사 모든 게 신기루일 뿐이다’라는 묵직한 잠언(箴言)이 귓가를 때린다.

대이작도 풀등





## 화제의 인물

그린피스 항해사 김연식



## 펜을 버리고, 방향키를 잡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Greenpeace, Sea-Watch 제공

스물아홉, 돌연 잘 다니던 신문에 사표를 내고, 넓은 세상에 나가겠다는 꿈 하나로 전공과 상관없는 항해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염려 반, 걱정 반이던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시작한 항해는 어느새 그에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배를 운항하게 만들었다. ‘에스페란자호’를 움직이는 그린피스의 첫 한국인 항해사 김연식(34).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인 최초로 지중해 난민 구조 활동에 뛰어들었다.

###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사회 초년병

그는 학창시절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인천일보의 기자가 되었다.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는 꿈을 이루었다는 즐거움에 뿔 듯이 기뻐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기자에 대한 막연한 꿈만 품었지, 어떤 기자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기자라는 직업이 내성적인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꿈과 현실 사이의 방향은 그를 점점 지치게 했다.

신문사 입사 3년 만에 과감히 사표를 냈다. 가슴속 답답함은 온 세상을 두루 구경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자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직업을 찾아보던 어느 날, 우연히 선원모집공고를 보았다. ‘젊은 그대, 바다를 열어라!’, 매력적인 문구였다. 해양대학을 나오지 않은 탓에 걱정이 앞섰지만, 바다를 향한 열망이 그를 움직였다. “인천일보 기자생활 당시 해양경찰서에 출입하면서 선원들로부터 들었던 바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 길로 국비로 해기사(항해사와 기관사를 통칭)를 양성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지원했습니다.”

### 목적이 이끄는 삶, 가슴을 뛰게 하다

해기사 양성과정에 합격한 그는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실무를 쌓기 위해 1년을 최하급직(무급 실습생) 선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과 달리 비전공자인 그에게 취업은 쉽지 않았다. “‘감자 깎고, 양파 까고, 접시 닦고’ 그래도 좋아. 배를 탈 수 있다면...’ 그땐 그런 마음이었

습니다.” 그러다 그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 벌크선을 타기로 결심했다. 스물아홉이 되던 해였다. 인도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일본, 두바이, 이집트... 그는 5년 동안 36개국 48개 항구를 다녔고, 이등항해사로 진급했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매력에 흠뻑 빠져있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고, 지난 2015년 <스물아홉, 용기가 필요한 나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젊은 나이에 큰돈을 모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도 사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아쉬운 갈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 목사의 테드(TED)강연을 보다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다. “책 내용 중 너희 손에 있는 게 뭔지 먼저 살피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재능을 너를 위해 쓰면 너의 소득이나 지위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사용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재능, 학력, 인맥, 창조력, 젊음, 시간, 재산 등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을 살피라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를 곰곰이 살펴보니, 젊음, 시간, 항해사 면허가 있더라구요.”





## 화제의 인물

그린피스 항해사 김연식



1

1. 빙하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루도비코와 그린피스 촬영팀
2.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해에 가장 가까운 섬 스발바르(Svalbard, 노르웨이)에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2



### 에스페란자, 희망을 향해하다

그렇게 그는 또 다른 꿈, 그린피스에서 운항하는 환경감시선을 타겠다는 새로운 꿈에 도전했다. “좀 더 의미 있는 승선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린피스에 지원했죠. 막막한 바람이지만 간절하면 이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린피스 항해사가 되기 위해 일급항해사가 되는 것도 포기했다. 상선 근무 때보다 급여가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린피스는 3척의 환경감시선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는 2015년부터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2천 톤급 ‘에스페란자호’의 항해사로 일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관련 캠페인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법어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었죠.”

이탈리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와 북극에서 진행한 영상 촬영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지난해 4월 루도비코가 작곡한 ‘북극아가’를 빙벽 옆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의 슬픔을 알려 북극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였죠. 루도비코의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도 배경 속 빙하가 녹아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지중해를 헤매는 쿠르디의 친구, 김연식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지중해 난민구조 활동까지 이어졌다. “지난 2월경 독일 출신 선원이 난민구조선에서 일할 항해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배를 몰 사람은 많지만 무임금으로 일할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물에 젖은 아기를 구조대원이 품에 안은 사진이었다. 그는 무작정 독일 시민들이 만든 난민구조단체인 ‘Sea-Watch’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그렇게 난민구조선에 올랐다. 그는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3

3. Sea-Watch가 표류 중인 난민들을 구조 보트에 태우고 이동하고 있다.
4.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들에게 긴급하게 구명조끼를 던진다.



4

하루에 많게는 640명의 난민을 구조했다. 구조과정에서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하기도 했다. “길이 10m쯤 되는 작은 보트에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뻥뻥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트는 전복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 혹은 전복 후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 해 5천여 명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결정 탓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는 오로지 후원으로 유지되는 난민구조를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5년에 지중해 터키 해안으로 떠밀려온 시리아 국적 세 살 남자아이 아일란 쿠르디 아시죠? ‘지중해를 헤매는 쿠르디의 친구들’이라는 스토리펀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후원목표액의 60%인 300만 원이 모였고, 일주일새 90%가 채워졌습니다.” 후원금은 모두 ‘Sea-Watch’에 전달

해 난민구조에 필요한 구명조끼와 생수, 구급약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문득 그가 왜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머리에 맴도는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대답을 찾던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조급함과 촉박함’이었다. “스스로 제 삶을 결정했던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5년이 더 지나면 제가 된 살이 되는 거죠. 짧은 삶에 대한 조바심, 특히 젊은 혈기로 현장에서 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물론, 쉼이 되면 그때 또 무언가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일단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지만, 분명 의미 있는 삶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손사래 친다. 제 일도 아니면서 남의 실패를 장담한다. 내 삶에 관한 한 조금은 독선적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신념뿐이다. 용기 내어 꿈을 좇아야 한다. - 스물아홉, 용기가 필요한 나이中 -



여름 별미  
—  
야시장 맛 vs 맛

## 잠 못 드는 여름 밤, 출출한데 야시장 갈래?

‘먹방’이 대세인 요즘, 야시장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핫 플레이스’다.  
도시의 깔끔하고 세련된 매력보다,  
복작복작 사람 사는 정과 덤이 주는 훈훈함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늦은 밤 수많은 사람들로 활기를 띠는 야시장을 걷다 보면,  
열대야의 뜨거운 여름밤도 흥겨워진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운영시간** : 매주 금~토 오후 6시~11시  
**위치** :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18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도보 3분 거리)  
**하나 더** : 야시장에서 배를 두둑하게 채웠다면  
인근 ‘달빛거리산책로’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도보  
15분 거리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송현 근린공원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산책  
하기 최적인 장소. 달빛거리산책로뿐 아니라, 조  
금 더 걷다보면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명소를 만날 수 있다.



## 달빛 아래 즐기는 다양한 먹거리 — 달빛거리 송현 야시장

넉넉한 인심이 자랑인 전통시장이 여름밤 별미 가득한 ‘먹방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저렴한 가격  
과 독특한 메뉴들로 개장 첫날부터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 수도권 최초 야시장이자, 행정  
자치부가 선정한 아홉 번째 야시장인 동구 ‘달빛거리 송현 야시장’이다. 눈과 입이 호강하는 이곳  
의 다양한 음식들은, 여름 다이어트 생각마저 저 멀리 날려버린다.

시장 안은 입구에서부터 골목 끝까지 약 30여 개 판매대가 길게 늘어서 있다. 파는 음식도 각양  
각색. 낙지호롱, 야채삼겹말이, 소고기불초밥, 스테이크, 대게파스타, 크레페, 케밥, 사탕수수주  
스 등 6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코끝을 간질인다. 야시장이 들어선 골목 안  
쪽에는, 공간이 협소하긴 해도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다.



블랙페퍼 스테이크

불향 가득 머금은 육즙으로  
침샘을 폭발시키는 스테이  
크는 단연코 달빛거리 송현  
야시장의 1등 인기 메뉴. 주  
인장이 개발했다는 후추향  
감도는 소스는 스테이크의  
풍미를 더한다. 한입 베어  
물면 레스토랑 스테이크도  
부럽지 않다.

호롱주주

꼬치에 감긴 낙지를 돌돌 풀  
어가며 먹는 재미가 쏠쏠한  
색다른 별미, 낙지호롱. 활  
낙지를 이용해서 그런지 씹  
는 맛이 일품이다. 감칠맛  
나는 매콤한 양념 덕에 시원  
한 맥주와도 잘 어울릴 듯.  
매운맛, 순한맛 선택이 가능  
하다.

복당

국제요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아들이 모친과 함께  
개발한 메뉴.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에 아삭한 식감의 숙  
주, 쫄깃한 당면이 어우러진  
불맛이 일품. 숙주 특유의 비  
린 맛을 잡기 위해 순식간에  
불로 익히기 때문에 요리과  
정 중 종종 불소가 펼쳐진다.

타코타마

흔한 타코야키는 가라. 일본  
오사카에서 전통방식을 배  
워온 셰프가 만든 타코야키  
를 맛 볼 수 있다. 겉은 바삭,  
안은 슈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럽다. 쫄쫄 씹히는  
문어 맛도 즐겁다. 타코야키  
를 굽는 무쇠판은 일본에서  
공수한 것.

떡닭's 한사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철판 위  
에서 노릇노릇 익힌 닭갈비.  
부드러운 닭고기와 쫄깃한  
떡이 맛있게 매운 양념과 어  
우러져 자꾸만 손이 간다.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  
쉬운 메뉴.





.....

**운영시간** : 매일 오후 5시~11시  
**위치** : 남동구 호구포로 810번길 42-8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하나 더** : 야시장 중앙에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 양쪽으로 음식판매대가 위치해있어 여유 있게 앉아서 음식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 매일 저녁 특별히 설치된 스크린에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



장작통

일단 두툼한 고기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린다. 흑돼지를 바비큐 통에 넣고 푹 익히기 때문에 기름기 쪽 빠진 담백한 돼지고기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다. 아들이들 부드러운 고기와 불판에서 익힌 야채가 어우러지는 맛은 말이 필요 없다.



모듬전

동태전, 동그랑땡, 꼬치, 녹두전 등 다양한 전들이 지글지글 철판에서 익어가는 소리를 지나치기는 힘들다. 입 안 가득 고소함을 느끼게 하는 녹두전의 바삭한 가장자리는 식욕을 돋운다. 주인장이 직접 담근 달콤한 식혜와 녹두전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태국음식

관광가이드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예 한국에 살게 됐다는 주인장 완라(50) 씨는 태국에서 요리를 전공했다. 팟타이, 쌀국수는 물론, 시원한 코코넛 음료수와 바삭한 태국 연꽃과자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다.



통닭

치킨 2만 원 시대에 맛있는 통닭 한 마리를 8천 원에 즐길 수 있다. 닭 한 마리를 가마솥에서 통째로 튀겨내는 데, 얇은 튀김옷 덕분에 바삭한 옛날 통닭의 고소한 맛을 가득 맛볼 수 있다. 꼬들꼬들한 식감이 일품인 뽕집 튀김도 이 집의 자랑거리.

.....

**운영시간** : 매주 목·금·토 오후 4시~10시  
**위치** : 서구 강남로 14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도보 8분 거리)  
**하나 더** : 강남시장에선 이따금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물켓이벤트, 특별한 할인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하다. 이밖에도 키다리 빼에로, 캐릭터 인형들과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어 아이들과 전통시장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인천 야시장의 원조 ————— 강남시장

인천 야시장의 원조는 서구 가정동 강남시장이다. 지난해 12월 처음 야시장을 연 강남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십(十)자 형태의 강남시장 북측 끄트머리 골목 점포의 30%가량이 장사가 안 돼 비어있던 150m의 거리는, 야시장 개설 이후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특히, 이곳 야시장은 기존 상인들과 청년사업가들의 ‘청년빌리지’ 점포로,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져 강남시장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중이다. 결코 맛은 저렴하지 않은 1만 원짜리 초밥, 그 자리에서 직화로 구워주는 맛깔스러운 꼬치와 떡갈비, 뜨끈뜨끈 치즈스틱은 연인 또는 가족들의 ‘먹스타그램’을 풍성하게 채운다. 강남시장은 지난 2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야시장사업 지원 기간이 끝났지만, 현재 상인회가 직접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너에게 꼬치다 왕닭꼬치

닭다리살만을 이용해서 만든 큼직한 왕꼬치가 시선을 잡아챈다. 부드러운 닭고기가 감칠맛 나는 양념 옷을 입어 윤기가 잘잘 흐른다. 왕닭꼬치는 아이들 간식으로, 쫄깃쫄깃 염통꼬치는 어른들 안주용으로 딱이다.



회오리소시지

핫도그가 라면 옷을 입었다? 핫도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라면 덕에 한입 깨물면 기분 좋은 바삭함이 입안 가득 한데, 통통한 소시지가 고소한 맛까지 더해준다. 소시지에 페이스트리를 둘둘 말은 회오리소시지도 아이들 간식으로 그만이다.



청년초밥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모듬 초밥을 단돈 1만 원에 즐길 수 있다. 촉촉하고 꼬들하면 서도 쫄깃한 초밥과 시원한 장국, 신선한 샐러드가 한 세트. 청결함을 보장하는 오픈주방이라 눈앞에서 초밥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빙어양과 미꾸리군의 만남

강남시장에서 장어 도·소매를 하고 있는 주인장 덕에 싱싱한 장어구이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소금구이, 고추장구이, 간장구이 세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다. 홍게살과 칵테일새우, 마카로니, 옥수수콘이 들어간 홍게그라탕도 일품이다.



레모네이드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다.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시원한 전구소다와 레모네이드는 여심을 저격한다. 레모네이드는 분말이나 청이 아니라, 즉석에서 레몬 하나를 통째로 착즙해 만들기 때문에 새콤한 레몬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영화 보며 즐기는 야시장 ————— 모래내 시장

손님들이 찾아들 시간인 오후 8시, 남동구 모래내 중앙광장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은은한 조명의 아케이드 아래, 왁자지껄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가득하다. 태국 음식, 바비큐, 녹두전, 통닭, 묵, 만두, 족발 등 침샘 자극하는 음식 덕분에 입구에서부터 무얼 먹을까 고민이 시작된다. 구월동 모래내 시장 중앙광장(수협 남동지점)에서 동측으로 나 있는 길이 80m, 폭 8m의 야시장은 저녁시간에 더 반짝반짝하다. 모래내 시장 야시장이 열리기 전, 이곳 골목은 ‘죽은 상권’이었지만, 저녁마다 열리는 야시장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야시장 16개 판매대의 절반가량은 시장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야시장 장사로 모듬전을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죠. 예전에는 저녁 7시면 마감했는데, 이제는 다들 늦게까지 찾아주시니 11시 넘어서까지도 판매해요.” 4년 가까이 모래내 시장에서 전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강경미(45) 씨는 몸은 힘들지만, 야시장덕분에 시장이 활기를 찾아서 좋다고 말한다.



# 인천에 온 개성상인

## 개성으로 간 인천 미술사학자

송암 이회림(1917~2007).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인천에 송암미술관을 세웠다.

우현 고유섭(1905~1944).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로 개성부립박물관장이 되었다.

인천과 개성, 두 도시와 맞닿은 그들의 엇갈린 삶은 다른 듯 닮아 있다.



1. OCI 포천 연수원에서의 송암 이회림(송암문화재단 제공)  
2. 개성부립박물관 집무실의 우현 고유섭

글 배성수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 개성, 그리움과 호기심의 대상이던 곳

개성은 이회림의 고향이자 고유섭이 생을 마감한 도시다. 1917년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난 이회림은 1946년 서울 종로에 포목점을 내면서 기업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실행민이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고향을 그리는 그의 마음은 더욱 각별했다. 개성에서 인천으로 옮겨 온 송도고등학교를 인수해 명문으로 키워 냈고, 개성시민회를 이끌며 격월간지 「송도」를 발행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북한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했다.

고유섭은 1944년 6월 26일 개성부립박물관 관사에서 지병인 간경화로 눈을 감았다.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수였던 그가 박물관 2대 관장으로 부임한 것은 1933년 3월이었다. 미술사학자 고유섭에게 있어 고도 개성의 구석구석은 흥미로운 조사 대상이었고,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적조사에 나섰다. 그때 기록한 메모를 훑날 그의 제자들이 모아 「송도 고적」이라는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 장사 혹은 고미술,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

‘마지막 개성상인’이라는 별명답게 이회림은 자신만의 셈법으로 사업을 일구었다. 어린 나이에 개성에서 점원 일을 하며 장사를 배운 그는 동양화학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금도 그는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미술사학자 고유섭도 한때 장사에 손을 댄 적이 있다. 1941년 인천의 부호였던 장인 이흥선의 도움으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는 무역업을 시작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인 간경화를 얻었다고 한다. ‘한국미술사의 아버지’. 고유섭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일본인에 의해 연구되던 우리 고미술의 체계를 바로 잡았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1925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해 미학을 전공했고, 미학연구실에 들어가 미술사를 연구했다. 고유섭이 미술사학자였다면, 이회림은 고미술품 수집가였다. 고유섭의 제자 최순우와 교류하며 고미술을 보는 눈을 길렀고, 제2의 고향이라던 인천에 고미술 전문 전시관 송암미술관을 설립했다.

### 애증과 보은의 도시 인천

1905년, 인천 용동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고유섭에게 인천은 아련한 향수의 대상이자, 아픈 기억의 잔상이 남은 도시였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미두업으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는 고유섭의 생모를 버리고, 새 어머니를 들였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체질이 허약했던 탓에 병치레가 잦았다. 생모와 헤어진 채 잦은 병치레로 유년 시절을 보낸 고유섭에게 고향 인천은 행복하게만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는 능허대와 해변, 문학산 등 인천의 모습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이회림은 기업가로서 삶의 기반이었던 인천을 ‘제2의 고향’이라 말하곤 했다. 인천에서 동양화학 등의 공장을 설립하고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2007년 이회림은 끝내 고향땅을 밟지 못한 채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에 앞서 평생을 모아 온 고미술품 8천400여 점과 송암미술관을 제2의 고향 인천시에 무상 기증했다. 자신을 성원해 준 인천 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마지막 개성상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셈이다.



송암미술관 전경

송암 10주기 추모전  
어느 개성상인의  
마지막 선물

일시 : 7월 18일(화) ~ 9월 24일(일)  
장소 :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후원 : OCI미술관



CULTURE  
CALENDAR

07月

01.

2017 악동뮤지션 콘서트  
‘일기장’ IN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 원, R석 9만 9천 원,  
S석 7만 7천 원  
☎ 1566-6551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배우열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무료(11세 이상)  
☎ 420-2790



황금토끼 - 토요상설무대  
잼스틱의 ‘유쾌한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02.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배우열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무료(11세 이상)  
☎ 420-2790

05.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문화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무료  
☎ 440-2065

06.

어린이 위생 영양 뮤지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무료  
☎ 860-9247

‘나답게, 너답게-PRAXIS’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전석 5천 원  
☎ 505-5995

07.

황금토끼 - 금요예술무대  
인천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가곡이야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영화콘서트’ 김시선의  
시선집중2 - 인셉션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460-0560

08.

2017 클래식시리즈 III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 1588-2341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 원  
☎ 1566-7623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아이랑의 ‘K-pop나들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09.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전석 2만 원  
☎ 1566-7623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5회 정기연주회  
‘엘가 교향곡 제1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스테이지 149 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8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황금토끼 - 금요예술무대  
와이매직컴퍼니 ‘조이매직서커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코리안 드림 II ‘타고’ - 타고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15.

스테이지 149  
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황금토끼 - 토요상설무대  
한울소리 가족타악극  
‘유쾌한 드러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16.

인천청소년교향악단  
클래식 향연 ‘세 번째 이야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만 원  
☎ 010-2751-8658

클라리넷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선착순 배부)  
☎ 424-7117

19.

2017 커피콘서트 V  
재즈보컬리스트 이부영  
‘미셀르그랑을 노래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20.

한여름 밤의 꿈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A석 2만 5천 원,  
B석 2만 원  
☎ 500-2000



21.

꽃 피우는 아이 - 무동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한여름 밤의 꿈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A석 2만 5천 원, B석 2만 원  
☎ 500-2000

22.

황금토끼 - 토요상설무대  
사랑스런 고양이 팝콘  
‘신나는 댄스타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29.

우리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V  
‘모차르트-나무참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5천 원  
☎ 505-5995

이달의 展

어린이 체험전시 ‘모래야 놀자’

6월 17일~8월 27일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제23회 예흔회전

7월 4일~7월 1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산업 공예품 심사

7월 4일~7월 1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흐름, 입속의 검은 잎

7월 4일~7월 13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송도1동 주민센터 수채화 동아리, 물빛에 잠기다

7월 4일~7월 13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18회 이남희 개인전

7월 11일~7월 1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어린이 체험전 ‘얼렁뚱땅 색깔공장 color 체험전’

7월 14일~9월 24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김영미 네 번째 개인전

7월 18일~7월 2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산업 공예품전

7월 18일~7월 2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한글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7월 18일~7월 27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NC예은 아트홀, 핀(fun) 아트전

7월 18일~7월 27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회 재난안전사회

7월 25일~7월 3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전시 포커스

고제민 초대 개인전 ‘꽃 여울’

꽃을 주제로 한 작가의 이번 작업은 그동안 대상(향토와 자연)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강물이 흘러 하루 아트막한 여울에 이르러 다시 반짝이듯 지난 생을 돌아볼 나이가 되어 꽃담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마음이 여울지듯 한다. 10년 전 즈음 꽃 그림에 몰두했던 그 시절 감회가 새롭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꽃향기와 남몰래 피었다 지는 소복한 꽃무리로 우리 마음속 그리움들을 형상화했다. 되돌아보면 아름답지 않은 시절이 없듯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언젠가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고운 기억이 되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장소 : 서담재 갤러리

기간 : 6월 28일(수) ~ 7월 22일(토)





# NEWS BRIEF



## 민선 6기 3주년 시민과의 대화



우리 시는 민선 6기 3주년 성과를 분석하고 남은 임기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 26일 ‘민선 6기 성과 및 향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발표하는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시민께 드리는 진심편지’를 통해 지난 3년간 성과와 민선 6기 1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전했다. 이 외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해 분야별 대표자들과 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은 “우리 시 부채가 2014년 말 13조2천억 원에서 현재 10조5천억 원으로, 2년 반 사이 무려 2조6천억 원을 갚았다”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재정정

상단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초 목표보다 이른 시점에 재정건전화를 이루면서도 사회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을 꾸준히 늘렸다고 설명했다. 연간 2천억여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동시에 사회복지 지출은 2014년 1조8천580억 원에서 올해 2조3천761억 원으로 27.6% 증가됐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가치재창조를 통해 인천 정체성을 찾고,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인천발 KTX 등으로 사통팔달의 인천 교통 시대를 준비한 점 등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440-2132

## 인천, 유엔 IPCC 총회 개최 후보로 선정

우리 시가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IPCC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망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고 채택하는 국제기구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IPCC 제48차 총회의 한국 유치에 신청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인천을 한국의 총회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인천은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이 있고, 송도컨벤시아 같은 대형 마이스(MICE) 시설을 갖춘 점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녹색기후과 ☎440-8592

##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일반화 본격화

우리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주안6공단방축고가 등 5개 지점에 12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연결하고, 통행제한 속도는 현재 시속 10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도로로 바뀌는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외에 서인천IC~신월IC 등 경인고속도로의 나머지 11.66km 구간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고속도로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의 : 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440-4197

## “시티투어 버스 타고 강화도 구경하세요”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티투어의 2번째 노선인 ‘강화도 테마형 시티투어’를 7월 1일부터 운행한다. 강화도 테마형 시티투어는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에서 역사테마 코스와 웰니스 코스를 오간다. 역사테마 코스는 검암역~대한성공회 강화성당(용흥궁)~강화평화전망대~교동면 대룡시장~강화지석묘(역사박물관)~광성보를 돌아볼 수 있다. 웰니스 코스는 석모대교가 개통된 후, 코스를 최종 확정한다. 시티투어 버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53

## 주차정보 제공 공영주차장 215곳으로 확대

우리 시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공영주차장을 내년 7월까지 총 215곳으로 늘린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40곳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데 국비·시비 등 20억 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주차장 175곳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차정보는 스마트폰에서 ‘미추홀 주차정보’, ‘U내비’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미추홀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주차 가능 면수, 주차장 위치, 주차요금 등이다.

문의 : 시 교통정책과 ☎440-3882

##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뜻을 담은 우리시의 ‘all\_ways\_Incheon’이 ‘2017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13일 기존의 ‘플라이 인천(Fly Incheon)’을 대신하는 ‘all\_ways\_Incheon’을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선정했다. 하늘 길과 바닷길,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세계로의 길, 미래의 길 등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새 브랜드 ‘all\_ways\_Incheon’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되는 인천의 철학과 지향점을 잘 나타낸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440-3081

## 벨기에 국왕 특사 아스트리드 공주 인천 방문



인천시장은 지난 6월 15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HRH Princess Astrid of Belgium)와 환담했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벨기에 경제사절단 단장 자격으로 정부 고위인사 및 기업인을 포함한 250여 명을 이끌고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방한했다. 2009년 5월 이후 8년 만의 방문이다.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는 전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의 장녀이자 현재 국왕 필립의 동생으로 국내외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벨기에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담당관 ☎440-3234

## 대규모 기업회의의 연달아 유치

우리 시가 다국적기업의 기업회의의 유치를 잇달아 성사시키고 있다. 먼저, 오는 9월 16일 ‘한국암웨이’가 남동체육관에서 국내외 사업자 7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내년 4월에는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화장품 유통기업인 ‘유니크패밀리’가 1만2천 명 규모의 기업회의를 개최한다. 암웨이와 유니크패밀리는 올해 4월 송도컨벤시아에서 각각 6천 명, 9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또다시 행사 장소를 인천으로 삼았다. 한편 시는 중화권에 초점을 맞춘 기업회의의 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정, 다국적 기업회의를 지속해서 유치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440-1503







###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첫 바이모달 트램 달린다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신고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이 도입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27일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바이모달 트램과 압축천연가스(CNG)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바이모달 트램은 친환경 에너지(CNG와 전기)를 연료로 쓰며 버스와 같이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

고 전철처럼 전용 궤도에서 자동운전이 가능한,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신개념 대중교통 수단이다. 경제청은 바이모달 트램 4대와 CNG저상버스 14대 등 18대를 이달 안으로 발주해 올해 안에 시험운행을 거쳐 청라국제도시역~가정역간 13.3km를 운행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483

### 경인선·수인선 초급행 열차 7일부터 운행

국토교통부가 7월 7일부터 경인전철에 초급행 전동열차와 수인선 급행열차를 신설·운행하기로 했다. 경인선 초급행 열차는 기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16개 역을 절반수준인 9개 역으로 줄여 운행시간을 7분(급행 47분→초급행 40분) 단축한다. 정차역은 동인천, 주안, 부평, 송내, 부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 등 9개 역이다. 수인선은 인천에서 오이도 간 7개 역(일반 14개 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주중 출퇴근시간에 8회 투입해 7분의 소요시간(일반 30분→급행 23분)을 단축한다. 정차역은 인천, 인हा대, 연수, 원인재, 인천논현, 소래포구, 오이도 등이다. 문의 : 시 교통정책과 ☎440-3852

### 인천시 대표색 찾기 시동... 인천 색 광장 조성도

우리 시가 인천의 대표 환경색채를 발굴·선정하고 ‘인천 색 광장(Color square)’을 조성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3억 원을 들여 인천을 대표하는 3가지 환경 대표색을 선정하고, 인천종합문예회관 광장을 대표색으로 꾸민 ‘색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의 Red 컬러와 그리스 산토리니의 White & Blue, 이탈리아 베네치아 원색의 다양한 컬러, 서울 상징색(10색·단청 빨간색, 기와진회색 등) 등 국내외 사례를 보면 도시 색채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시는 인천만이 가진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담아 색으로 추출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440-4794



### 어르신이 ‘일자리, 시정소식’전한다

우리 시는 지난 19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액티브 시니어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보단은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및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로 기관의 추천 및 본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시니어 홍보단은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느낀점과 일자리 사업의 효과, 시정의 소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인천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다.”라며 “지역의 어르신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주시고 시정의 좋은 소식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2

### 로봇산업지원센터·연구소 7월 준공

인천로봇랜드의 첫 시설인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가 이달 안에 준공한다. 로봇산업지원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3층, 전체 넓이 3만7천㎡ 규모로 로봇산업을 집적화해 로봇제품의 사업화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로봇 벤처기업을 육성, 인큐베이팅하는 등 로봇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넓이 1만1천㎡ 규모로 로봇 분야 연구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440-310



### ‘등대 올림픽’ 내년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



‘등대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 협회(IALA) 콘퍼런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내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국제항로표지협회에 가입한 83개 회원국 대표들이 1929년부터 4년마다 만나 는 자리로, 전 세계 항로표지의 표준 기술을 제정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린다.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83개 회원국과 49개 연구기관, 110여 개 관련 기업에서 총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시 항만과 ☎440-4849

### LG전자 인천캠퍼스 확장 투자유치

LG전자가 경서동에 위치한 인천캠퍼스에 2천 3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개발 등 복합시설을 증설한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28일 LG전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LG의 이번 증설은 서구 경서동 일원에 총면적 10만8천35㎡부지에 기존

건축물 포함 13개동, 최고층수 10층, 연면적 약 18만㎡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 문의 : 시 투자유치과 ☎440-3293

### 어린이 안심 키즈폰 보급... 스마트 안전망 구축



우리 시가 취약계층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를 보급한다. 시는 1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어린이 6천500명에게 ‘바다라’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2년간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비용과 통신비 35%는 SK텔레콤이 부담하고, 통신비 65%는 시가 지원한다. 한편 인천의 바다와 안전하게 전화를 ‘바다라’라는 뜻을 지닌 ‘바다라’는 어린이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72시간 경로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 시 안전정책과 ☎440-5732

### 주거복지기본계획 공청회...주거약자 주거정책 ‘밀그림’ 공개

우리 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37만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주거복지 정책 5대 추진전략으로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인천형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포용적 주거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440-4742



# COUNCIL NEWS



##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하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하반기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8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10회에 걸쳐 139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며 조례안 154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도 총 288건을 개정 또는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 총 154건 중 56%인 8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또한, 의원들은 ‘현장정치’ 구현을 위해 43회에 걸쳐 민생현장 88여 개소를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4회, 간담회 13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토론포문을 정착시켰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예산분석팀을 신설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했으며, 5월부터는 본회의에 한해 시행하던 인터넷 생방송을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해 시민에게 회의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하반기 1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소통 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시의회에서 관내 장애인 단체장 및 시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장애인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고충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실행 가능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와 현장 애로사항 토의도 이뤄졌다.

황흥구 문화복지지원장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제7대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 선임

제7대 인천시의회가 하반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5개 상임위원회별 의원 2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창일 의원이 선출됐고, 제1부위원장은 홍정화 의원이, 제2부위원장은 허준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정창일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짜였는지, 배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동료 의원들은 물론 시 집행부와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의장 추천 의원 4명과 상임위 추천 의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만용 의원이 맡았고, 조계자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각각 제 1·2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최만용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의무를 준수해 제7대 인천시의회가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회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7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 제갈원영 의장, 소방본부·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격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소방본부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제갈원영 의장을 비롯해 허준, 임정빈, 오홍철, 노경수, 유일용 의원 등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활용해 식수와 농업용수를 지원해 준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인천소방본부는 옹진군 섬 지역, 남동구 서창동, 만수동 등에 소방차를 활용해 급수를

지원했으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도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도 지원했다. 이어 지난 4월 4일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도 방문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중국어선 10척 나포, 퇴거 186척, 차단 348척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와 주권보호를 위한 해양경비 활동에 여념이 없는 경비단 현장 근무자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했다.



## 인천사회복지중사자권익위원회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단체장 및 시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인천사회복지중사자권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사회복지중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민·관 협의기구를 법적·제도적으로 설치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에 대한 사항들이 건의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공동운영지침 제·개정 시 인천사회복지중사자권익위원회와의 협의와 시설별, 분야별로 각기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사자의 ‘임금 단일화’ 등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중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간담회와 민·관 워크숍 진행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도서지역 용수부족 해결’ 촉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인천은 도서지역 강수량이 평년강수량의 37% 수준이고 저수율이 38.2%(평년대비 69.5%)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뭄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김경선 의원은 ‘도서지역 용수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9일 시 재난안전본부, 농축산유통과, 상수도사업본부, 옹진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저류지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 확대 등 근본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기금 등 신속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찰칵. 인천 사진 전시회

인천 사진을 공모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언제든 좋고, 스마트폰, DSLR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인천의 아름다움을 정성스레 담아낸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좋은 날의 피크닉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은 피크닉 즐기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햇살 좋은 날 한번 나가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손성훈 / 남동구 아암대로



수도권매립지 유채꽃밭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를 개방했을 때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작나무 산책길도, 청보리 밭도, 들꽃들도 참 예뻐합니다.  
백상현 / 남구 주안동

외로운 맥아더 동상

40년 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외로운 맥아더 동상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임세라 / 연수구 연수동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에 갔습니다. 그 근처 공원에 있는 재미있는 조형물에서 찰칵.  
송명진 / 남구 한나루로



사랑해, 아가야!

영종도 앞바다의 여울에 눈이 부십니다. 넓은 바다 닮은 큰마음과 꿈 가지라며, 이제 돌맞이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아가야!’  
이혜연 / 부평구 체육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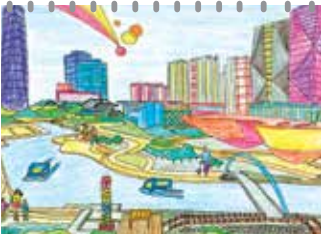
여러분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벚길로 닿을 수 없다면 발길로 닿으면 됩니다. 인천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섬, 선재도와 목섬.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듯, 모든 섬이 사람과 통합니다.



<굿모닝인천> 6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7월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인선 남동구 서구 검암동



위은주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박미진 남동구 은봉로



사진 & 컬러링북 보내는 방법

<굿모닝인천> 8월호에 게재할 사진과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2017년 7월 20일까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 휴대폰 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면 끝!  
어디로?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440-8305



#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연계 과정 교육생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은 산업체 맞춤형 현장 실무 위주로 기술 분야를 교육하고, 교육 후 바로 취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 교육 과정

- 3D 모델링을 활용한 제품 설계 제작(금형)
- 기계 설계 제작(CAD/CAM/CNC)
- 전기 시스템 제어

### 교육생 전원 혜택

- 우수 협약 업체 취업 알선
- 자격증 취득(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교육비 전액 무료(기숙사, 식비, 교재 및 실습재료 등)
- 매월 교육 수당 지급(통학생 교통비 별도 지급)

**모집 인원** : 과정별 30명

**신청 방법** : 인천인력개발원 인터넷 접수

**신청 기간** : 7월 11일(화)까지

**문의** : 인천인력개발원 ☎810-6520

## 경제 정보 공간 ‘Rich Incheon Plain(모두가 부자 되는 곳, 인천)’ 개통

우리 시는 금융 소외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각종 경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Rich Incheon Plain(모두가 부자 되는 곳, 인천)’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경제 소통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인천시 경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확인 및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SNS 주소]

- 블로그 : [blog.naver.com/allwaysic](http://blog.naver.com/allwaysic)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allwaysic](http://www.facebook.com/allwaysic)
- 트위터 : [twitter.com/allwaysic](http://twitter.com/allwaysic)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allways\\_ic](http://www.instagram.com/allways_ic)
- 카카오톡 : [story.kakao.com/ch/allwaysincheon](http://story.kakao.com/ch/allwaysincheon)

**문의** : 시 경제정책과 ☎440-4214

## ‘뇌 건강 쑥쑥! 찾아가는 1:1 무료 수업’ 참가자(기관) 모집

인천광역치매센터는 인천 관내 어르신의 인지 증진을 위한 ‘뇌 건강 쑥쑥! 찾아가는 1:1 무료 수업’의 참가자 및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 7월~11월(기간 내 10주, 20회 진행)

**모집 대상** : 65세 이상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모집 기한** : 정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mdc1220@daum.net) 송부 또는 팩스(472-2030) 접수

**문의** : 인천광역치매센터 ☎472-2029

## ‘2017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우리 시는 양성이 평등한 조화로운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17년 인천광역시 양성 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 : 7월 5일(수) 오후1시 30분 ~ 4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요 내용

- 식전 공연 : 대한어머니회 합창단, 댄스그룹 VX 공연
- 기념식 :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인기 입장, 유공자 표창 등
- 축하 공연 : 뮤지컬 콘서트(배우 전수경과 앙상블)

### 부대 행사

- 체험·홍보 부스 및 포토 존 운영(7월 5일, 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
- 양성 평등 공모전 수상작 30점 전시회(7월 3일~7일, 시청 중앙홀)
- 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런치 콘서트 개최(7월 4일, 시청 중앙홀)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697

##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무료 체험 교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무료 체험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 : 장구 배우기, 경기 민요 배우기, 다례(전통차) 체험,  
소금 연주 배우기, 단청 체험 등

**대상** : 일반 시민 및 학생(가족 단위 접수 우선 선발)

**모집 인원** : 각 강좌별 20명 내외

**강좌비** : 전액 무료

**모집 기간** : 7월 4일(화)~18일(화)

**모집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전수교육관 방문 접수(수강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 [ilc.incheon.go.kr](http://ilc.incheon.go.kr)

**문의**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440-8080

## 국민인수위원회 in 인천광역시 국민 제안 접수 창구 운영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인수위원회 in 인천광역시 제안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 7월 12일(수)까지

**장소** : 시청 민원실(자치행정과) 및 각 구청

**내용** :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 제안 접수

**참여**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SNS(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오프라인  
공간에 제안 제출 및 행사 참여, 국민인수위원회 in 인천광역시(시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인수위원회 접수 창구)에 제안 제출 등을 통해 가능

## 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7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치유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 기간** : 8월 1일(화)~8월 12일(토) / 11박 12일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남자 중학생 25명

### 캠프 내용

- 상담 지원(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모 상담, 가족 상담 등)
- 활동 지원(체험 활동, 대안 활동, 체육 활동, 가족 캠프 등)
- 생활 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등)

**비용** : 무료(일반 계층 식대 보조금 10만 원, 취약 계층 식대 무료)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21-2309

## 유화 그리기 수강생 모집

동구 금창동 주민센터는 자신만의 유화작품을 그릴 수 있는  
유화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 유화에 관심있는 분

**교육기간** : 매주 화요일 오후1시~3시

**준비물** : 유화물감, 붓, 캔버스, 오일 등(개인준비)

**수강료** : 월 2만원

**장소** : 인천 동구 금창동 주민센터 2층

**문의** : ☎770-5964-6





2017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안내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음악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 관광 축제(유망 축제)에 선정된 ‘2017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8월 (락 페스티벌 : 8월 11일~8월 13일)  
**장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등  
**내용** : 락 페스티벌, 펜타 슈퍼루키, 라이브 딜리버리 등  
**문의** : ☎1644-1118 (pentaportrock.com)

[주요 행사 일정]

| 행사명      | 일정                             | 주요 내용   |
|----------|--------------------------------|---|
| 락 페스티벌   | 8월 11일~8월 13일                  |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80여 개 팀 공연<br>- 송도 달빛축제공원              |
| 펜타 슈퍼루키  | 7월 8일                          | 신진 아티스트 라이브 결선<br>- KT&G 상상마당                       |
| 라이브 딜리버리 | 7월 15일<br>7월 21일~22일<br>7월 29일 | 찾아가는 라이브 콘서트<br>- 덕적도, 라이브클럽(신포동 등), 인천문화예술회관(아외광장) |



교육과 체험이 함께하는  
‘수자원연구소’로 놀러 오세요!

우리 시 수자원연구소는 해양 수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4시(토·일·공휴일은 휴관)  
**관람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단체 10인 이상 관람 가능)

**관람료** : 무료

[프로그램]

- 체험학습관 : 인천의 바다·섬·생물 및 서해안 갯벌 이야기 설명 터치 풀 (손으로 직접 어류 및 패조류 등을 만져 볼 수 있는 공간)
- 입체영상관 : 생생한 화면의 3D 입체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
- 자연체험심터 및 갯벌 체험 : 연구소 내 해송군락지 이용 및 서해안 갯벌 체험 가능

**예약 방법** : 홈페이지(fish.incheon.go.kr)

**위치** :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문의** : 인천시 수자원연구소 ☎883-5060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지원센터’ 명칭 공모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 1단계인 공익시설 ‘로봇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인천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합니다.

**참여 기간** : 7월 7일(금)까지

**참여 대상** : 로봇에 관심 있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방법**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bitp.or.kr) ‘지원 사업’ 참조

**결과 발표** : 7월 14일(금) 홈페이지 공개

- 최우수상 1명 30만 원
- 우수상 1명 20만 원
- 장려상 3명 10만 원
- \*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전자 추첨 20명 1만 원 상당 커피 상품권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440-3109,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진흥센터 ☎260-0669

로봇산업지원센터는?

로봇산업을 집적화해 로봇 제품 사업화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로봇 벤처 기업 육성, 인큐베이팅 등 향후 인천의 로봇 연구·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소래습지에서 만나는  
사데풀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학명** : *Sonchus brachyotus* DC.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박찬호

인천 남동구는 시청, 교육청, 경찰청,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이 위치한 인천의 정치, 교육, 행정, 예술의 중심지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대표적이다.

인천대공원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전시관인 환경미래관, 5월을 기다리게 하는 장미원, 사막여우와 미어캣 등을 볼 수 있는 어린이동물원, 똑딱똑딱 목재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에 따른 변화무쌍한 경치에 지루할 틈이 없다. 그야말로 자연 속 인천 시민의 휴식처다.

수도권의 대표 재래어항 소래포구는 인천 하면 떠오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살아 있는 어항 그대로다. 지난 화마의 상처가 남아 있지만 갯 잡은 싱싱한 해산물, 젓갈, 건어물 등을 맛볼 수 있는 소래포구는 여전히 우리의 발길을 기다린다.

그리고 폐염전을 활용해 조성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습지 내 생물과 염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 폐염전을 복구해 직접 소금을 채취해 볼 수 있는 염전학습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휴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데풀이다. 사데풀은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해변이나 들판에서 잘 자라며, 거매채, 고매채, 야고채라고도 불린다. 얼핏 민들레와 닮았지만 민들레와 달리 키가 60~100cm까지 크며, 봄에서 여름에 피는 민들레보다 늦은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마디마다 서로 어긋난 위치에 생겨나며 길쭉한 타원형이다. 잎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톱니가 마치 물결치듯 배열되어 있다. 봄에 나는 어린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해열, 해독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말은 푸른 자연 속 공원과 활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인천 남동구로 떠나보자. 그리고 길가나 들판에서 사데풀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며 사진 속 추억 한 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 다시, 사람을 보아야 한다



글 여백 (인천독립영화협회)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인천독립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 영화제를 시작할 때 마음은 꽤나 단순했다. ‘인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우리는 각자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영화제가 여러 해를 지나면서 제법 영화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마음으로 영화제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첫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영화제를 준비하던 우리는 새롭게 만날 인천의 영화인들에 꽤나 설렘과, 영화제를 찾아 함께 즐기는 시민에게 무척 감사했다. 상영할 작품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그다지 아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피로감에 부딪혔다. 영화제로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부쩍 늘었는데,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만이 일을 한다 싶어 지쳤다. 부족한 예산 탓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겨우 꼴을 갖추는데, 주변에 아쉬운 소리가 자꾸 많아지니 섭섭했다. 그러다 보니 흥이 사라지고, 얼굴에 그늘이 졌다. 함께 준비하는 이들로부터 걱정스런 인사를 받는 일이 잦아졌다. 피로감은 작년 네 번째 영화제를 준비하며 절정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졌다.

마음이 다시 열린 건 2017년 봄을 맞으면서다. 우연히 다시 발견한 한 편의 시가 생각을 뒤흔들었다. 자신에게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겉에 있는 이들, 함께 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매번 새롭게 나타나고, 손을 거드는 이들에게 반가워하고 있는가?’ 2013년 첫 번째 영화제 이후로 이제 겨우 몇 년이나 지났다고, 처음 그 소박한 소망을 잊었는가 싶어졌다. 조금 꼴을 갖췄다고 해서 밖으로 빛나는 영화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화제를 바랐던가 부끄러워졌다.

벌써 올해로 다섯 번째 인천독립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소박하지만 진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작은 영화제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또 부끄럽지 않게 인천 시민과 인천의 영화인들이 함께할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린다. 2017년 8월 18일~20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치른다. 8월 한창 무더운 여름, 많은 인천 시민이 시원한 극장에서 신선한 독립영화의 향연을 즐기면 어떨까 싶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다시>

희망찬 사람은 / 그 자신이 희망이다 / 길 찾는 사람은 / 그 자신이 새길이다 /

참 좋은 사람은 /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 사람 속에 들어 있다 / 사람에서 시작된다 /

다시 / 사람만이 희망이다

우연히 발견한 시는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작품이다. 예전 20대 중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깊은 고민을 할 때 삶의 태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지쳐있던 나를 흔들어 일으켰다. 잊지 않아야겠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임을.



# ‘깡통’의 고뇌

배다리에 인천의 술 ‘소성주’를 만들었던 인천양조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인 ‘스페이스 빔’이 10년간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 앞에 ‘작품’ 하나가 서 있습니다.

흔히 ‘고뇌하는 깡통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인증 샷 모델로 인기가 좋습니다.

얼마 전 팔 한쪽이 없어졌습니다. 고물 수집하는 어르신이 떴습니다.

‘추적’ 끝에 겨우 찾아왔습니다. 팔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외과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은 아직 외팔이 신세입니다.

인천양조장이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이런저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깡통 로봇처럼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무참히 사라진다면

인천은 정말 ‘문화 깡통’ 도시가 됩니다.

- 동구 금창동